

善惡-倫理學的 研究 (二)

韓稚振

三

이로부터 道德問題의 第一인 目的的 道德論이 무엇인지 理由를 부쳐 說明 하려한다. 大概 普通人은 흔히 形式的 道德觀에 偏重하고 잇나니 엇더한 行爲든지 그 影響에 따라 道德的으로 惡하고 善한 것이 아니라 行爲 그 自體가 惡하고 或은 善한 것이 其行爲의 結果로 된 影響보다 그 行爲를 하게 한 動機와 處地가 그 行動의 道德的 價値를 判斷한다 한다. 이는 動機說이다. 비록 慈悲한 엇더한 사람이 惡漢에게 被害 當하는 엇던 사람을 救助하려다가 成功치 못하고 도리어 自己의 生命까지를 失하였다 하면, 其慈悲人의 行爲가 비록 成功치 못하고 도리어 自己의 生命까지 失하는 影響을 生하였으나 그 行爲의 道德的 價値는 儼存하여 있다는 것이다. 勿論 吾人은 이러한 意見을 反對는 아니한다. 남을 도아주려다가 그 도움을 주려든 行動이 조흔 結果를 못 내었다고 그 도아주려든 動機를 否認하지는 안는다. 그러나 그르타고 이 動機說이 吾人의 目的說의 眞理를 否認한다는 理由는 되기 甚難하다. 勿論 目的說은 特殊한 一種 行爲의 價値를 그 實在的 結果로서 判斷코저함은 아니요, 다만 凡行爲가 自然的으로 조코 조치 못한 影響을 産할야는 傾向을 觀察하여 行爲가 善하고 或은 惡한 것이라 主張하는 것이다. 이래서 아까 列舉한 殺人事件을 두고 보드래도 普通 救助란 行動은 그 目的한 것을 成功하는 것이 自然的 原則이요, 救助할라다가 도리어 其反對되는 害의 結果를 産하게 되는 行動가튼 것은 一種 特殊的 行動이라 할 수 있다.

被害人을 救出하러다가 救出치 못하게 되는 이유는 그 救出이란 行爲가 自然的으로 납마서 그리된 것이 아니라 救出者의 無智라든지 害를 주든 惡漢의 能猾한 외에 基因하여 된 偶然의 事일 것이다. 그러므로 救助란 行爲의 自體的 性質에서 된 自然的 結果는 아니다. 實로 道德은 現實的 特殊結果에 關한 問題가 아니요. 凡行動의 그 自然性에서 發露되는 影響을 調査하는 것

이 그의 本職인 것이다. 落下하는 物體가 여러 가지로 現實的 運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特殊的 現象을 說明하려 아니한다. 다만 었던 物質이 落下하는 것은 大體로 萬有引力律에 依하여 되는 것이라고 解釋함에 긋치는 것이오, 引力律 其他 勢力의 影響도 그 落下하는 物體의 一種 原因이 되어 있는 것도 認定한다. 그러나 그것을 골골히 舉示하려 아니한 것이다. 普通的 原則만 考察하는 것이다. 同一히 醫學은 藥의 自然的 治療를 爲主하고 豫防을 傾向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르다고 藥외에 다른 特殊的 原因이 그 治療와 豫防에 影響을 주지 안는다고 否認은 아니한다.

이와 가튼 理致로 道德學은 特殊的 行爲에 無數히 關與할 수 있는 그 現當의 結果를 決算하려 하지 안코 行爲의 形式의 그 自然的 傾向을 判定하려 하는 것이다. 이래서 慈善이나 愛가튼 것은 인류의 悲慘을 除去하라는 自然的 傾向을 가진 故로 그것을 善하다 하며, 殺人이나 憎惡은 自然히 人類의 幸福과 秩序의 反對를 가져오는 故로 惡이라 하게 되는 것이었다. 卽 었던 行爲는 其性質上 조흔 結果를 가져오고, 或 었던 行爲는 其本體 性質上 납분 結果를 가져온다 함이다. 우리는 여기서 形式的 道德學者와 가튼 行動은 自然的으로 善하고 或은 惡한 結果를 産한다 한다.

그러면 以上과 如한 目的論은 錯誤된 思考라 할까? 慈善이나 殘忍 그의 結果는 如何間 各各 天然의으로 惡하고 善한것으로 되어있다 할까? 萬一 예수 가튼 이가 世上에 出現하여 萬人을 救援하라해도 周圍 環境이 그로 하여금 그르케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卽 그러한 結果를 만들지 못했다고 예수 가튼 萬人同愛者의 人格과 價値를 否認하여야 할 것일가? 吾人은 主張하되 그러한 人이 여러 가지 外界的 障礙로 自己가 救하고자 하는 萬民을 救助치 못했다 하드래도 그 救코저 하는 傾向은 그대로 存在한다고 斷言한다. 그리고 그 傾向이 存在하는 以上 거기에 依하여 其人의 道德的 價値를 判定할 수 있다 한다. 그 理由인즉 行爲의 自然的 傾向에 依하여 道德的 判定을 下하는 卞답이다.